
2018년 2/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18년 2/4분기 경주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 보고서

□ 조사 개요

○ **목 적** : 경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회원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대 상** : 경주지역 제조업체 52개사

○ **기 간** : 2018년 2월 23일 ~ 2018년 3월 9일 (휴일제외 10일간)

○ 조사 내용

1. 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18년도 2/4분기 전망치 및 2018년도 1/4분기 실적치 (체감경기,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 조달여건)
2. 2018년 1/4분기와 2018년 2/4분기의 정책적 환경 비교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1. 분기별로 조사대상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
2.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 수} - \text{악화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2018년 2/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 경주지역 주요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BSI '75'으로
.... 여전히 기준치 '100' 밑돌아
-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의 기대심리는 1분기와 비교해 소폭 상승..
2018년 1/4분기 전망치 '73' 대비 '2' 포인트 상승

I

경주지역 경기전망

- 경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주요 제조업체 52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BSI)을 조사한 결과,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올 2/4분기 전망치는 「75」로 BSI 기준치인 100에 여전히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7년 말 부터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체 및 근로자들의 기대감이 오르고 있어 전망치가 2017년 4/4분기 「54」, 2018년 1/4분기 「73」, 2018년 2/4분기 「75」 포인트로 꾸준한 증가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생산·소비도 큰 폭 반등하여 회복 흐름세를 이어 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이후 남북한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 회담 개최 예정,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급변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고 있으나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보복이 현실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한·미 FTA개정 협상에 따른 철강수출 쿼터제 설정으로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경주지역 철강 제조업체들의 수출량 및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내수부진까지 이어져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 자동차 생산은 최근 2년간 연속 줄어들고 있으며 2016년부터 세계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순위에서도 인도에 밀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경주지역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경우도 내수 판매량과 해외 수출량 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공업 및 자동차 부품제조업의 위기감 팽배와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앞으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타격과 함께 장기적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에 경주상공회의소는 '어려운 중소 제조·수출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지원 자금 확대와 모범 납세 기업체에 세정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림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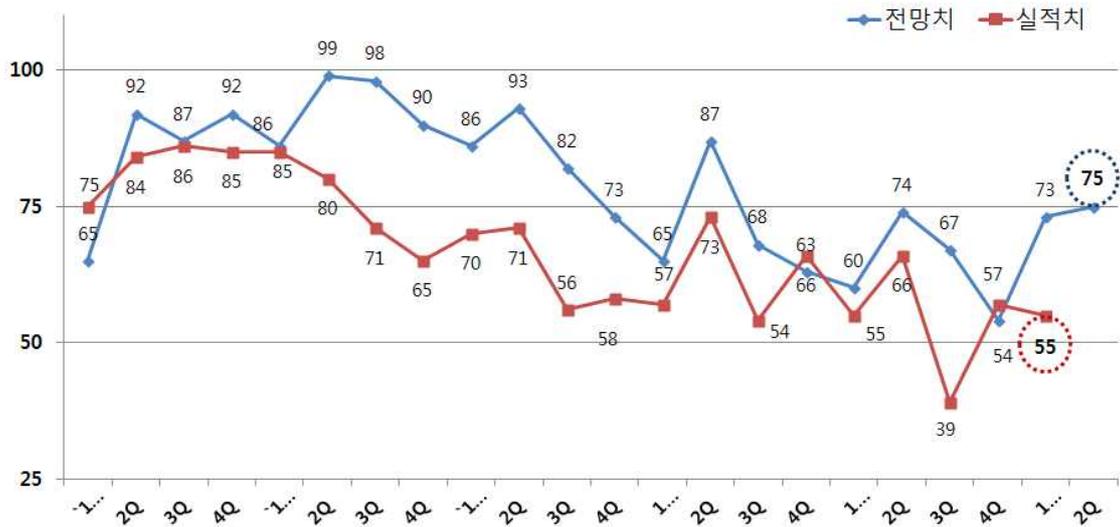


표 1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구분 \ BSI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전망치	82	73	65	87	68	63	60	74	67	54	73	75
실적치	56	58	57	73	54	66	55	66	39	57	55	

II

항목별 경기동향

- 2018년 1/4분기 실적 대비 2018년 2/4분기 전망을 비교하면, 전반적인 체감경기의 경우 (62→87), 내수 매출액 (58→90), 수출 매출액 (60→69), 내수 영업이익 (48→79), 수출 영업이익(58→71), 자금조달여건(42→54)으로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치 10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18년 1/4분기 실적 대비 '18년 2/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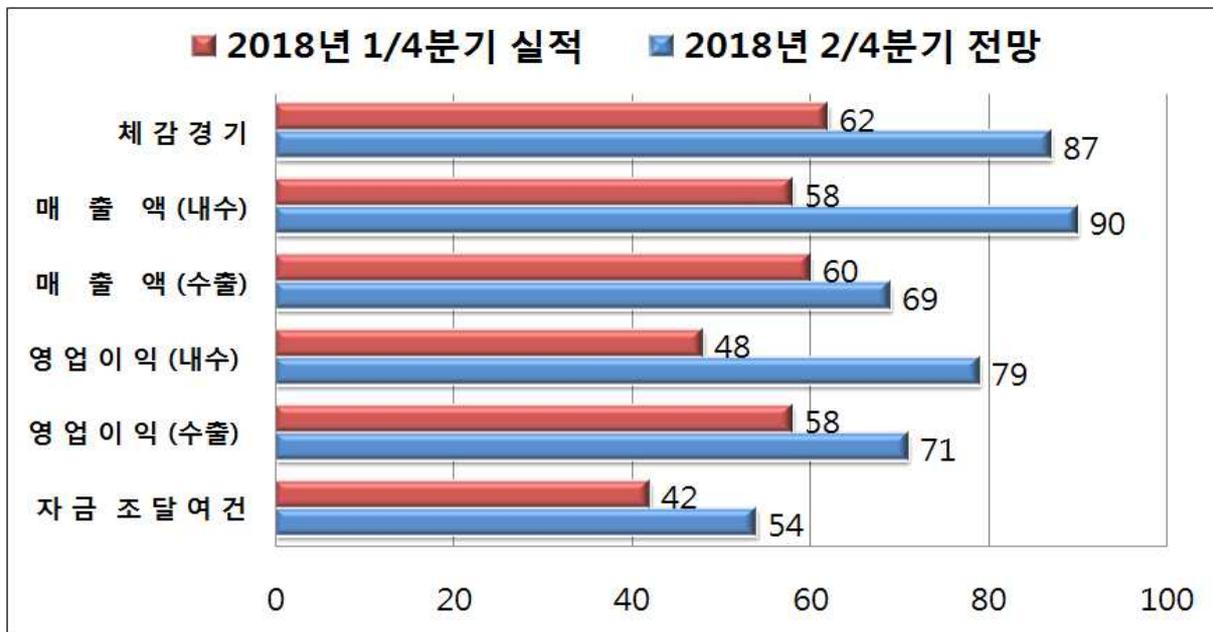


표 2 경주지역 제조업 분기별 BSI

항 목	기 간		2016				2017				2018						
			3/4		4/4		1/4		2/4		3/4		4/4		1/4		2/4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체감경기	50	40	52	76	60	42	68	50	62	31	47	50	76	62	87		
매출액	내수	53	46	64	82	62	44	78	50	63	35	60	60	78	58	90	
		수출	55	62	62	74	60	63	55	62	62	74	60	69			
영업이익	내수		53	44	60						25	49	56	72	48	79	
		수출	45	47	54					45	47	54	66	58	71		
자금조달여건					70	94	54	66	62	57	46	58	60	70	42	54	
설비투자	94	100	87	102	84	80	84	103	87								

III

기업 경영 핵심 변수

1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환경 변화 (32.4%), 금리인상 가능성 (22.2%), 美·中과의 통상마찰 (15.7%), 미래에 대한 대비 부족 (13.9%), 가계부채 증가 (6.5%), 환율변동 (6.5%), 기타 (2.8%)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선택>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노동환경 변화	35	32.4%
금리인상 가능성	24	22.2%
美·中과의 통상마찰	17	15.7%
미래에 대한 대비 부족	15	13.9%
가계부채 증가	7	6.5%
환율변동	7	6.5%
기타	3	2.8%
합 계	108	100%

2 “귀사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어디입니까?”

- 수출실적 없음 (44.2%), 미국 (25%), 기타 (15.4%), 중국 (9.6%), 동남아(5.8%)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수출실적 없음	23	44.2%
미국	13	25%
기타	8	15.4%
중국	5	9.6%
동남아	3	5.8%
합 계	52	100%

3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출환경 악화 (61.5%), 수출환경 불변 (21.2%), 수출환경 개선 (17.3%)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수출환경 악화	32	61.5%
수출환경 불변	11	21.2%
수출환경 개선	9	17.3%
합 계	52	100%

4 “귀사는 교역과정에서 통상마찰(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피해 경험이 있습니까?”

- ‘피해 입은 적 없음’ (69.2%), ‘피해 입은 적 있음’이라는 응답이 (30.8%)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피해 입은 적 없음	36	69.2%
피해 입은 적 있음	16	30.8%
합 계	52	100%

5 “통상마찰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귀사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 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수용 (31.3%), 기타 (25.0%),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18.8%), 법률적 대응 또는 해당기관에 공식 항의 (12.5%), 개인적인 인맥이나 거래관계 통해 해결 (12.5%)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수용	5	31.3%
기타	4	25.0%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3	18.8%
법률적 대응 또는 해당기관에 공식 항의	2	12.5%
개인적인 인맥이나 거래관계 통해 해결	2	12.5%
합 계	16	100%

6 “ 또는 중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해 거래선(주요 수출국)을 변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변경계획 없음' (86.5%), '변경계획 있음'이라는 응답이 (13.5%)로 나타났다.

<중복선택>

<단위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변경계획 없음	45	86.5%
변경계획 있음	7	13.5%
합 계	52	100%

7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정을 하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함 (38.5%), 현재 협정이 상호 호혜적이므로 미국을 설득해 현상유지 (26.9%), 우리 입장을 적극 주장해 더 반영시켜야 함 (23.1%),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면 폐기도 생각해야 함 (11.5%) 순으로 나타났다.

< : 개, %>

	응답 업체수	백분율
개정을 하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함	20	38.5%
현재 협정이 상호 호혜적이므로, 미국을 설득해 현상유지	14	26.9%
우리 입장을 적극 주장해 더 반영시켜야 함	12	23.1%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면 폐기도 생각해야 함	6	11.5%
합 계	52	100%